



김상훈 옮김

시라이 아키코 지음 |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지음

메시아의 구원

발터 벤야민의 메시아주의에 관한 연구

「폭력비판시론 : 룩셈부르크와 벤야민」(이치노카와 야스타카)

「법/권리의 구출 : 벤야민 재독」(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월간 멀티튜드
multitude.co.kr



메시아의 구원

발터 벤야민의 메시아주의에 관한 연구

「폭력비판시론: 룩셈부르크와 벤야민」(이치노카와 야스타카)

「법/권리의 구출: 벤야민 재독」(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시라이 아키코 지음 |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지음

김상운 옮김

일러두기

1. 이 책은 시라이 아키코(白井亜希子)의 박사학위 논문인 「メシアの救出：ヴァルター・ベンヤミンのメシアニズムをめぐる研究への一寄与」(一橋大学, 2012년)를 옮긴 것이다. <https://hermes-ir.lib.hit-u.ac.jp/hermes/ir/re/25484/0201200801.pdf>
2. 이 글 외에 2개의 보론을 추가했다. 市野川容孝, 「暴力批判試論—R・ルクセンブルクとW・ベンヤミン」, 『現代思想』 제33권 12호, 青土社, 2005년 11월호.; 市野川容孝, 「法／権利の救出：ベンヤミン再読」, 『現代思想』, 34권 7호, 青土社, 2006년.
3. 필자가 인용한 발터 벤야민의 글은 필자의 번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문에 수록했고, 국역본의 번역본과 대조하라는 의미에서 이를 해당 쪽의 각주에 입력해두었다.
4. 옮긴이의 첨언일 경우나 다른 번역이 가능할 경우 또는 경합하는 번역어가 있을 경우 () 안에 넣었다. 또 번역어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편, 일본식 한자는 모두 한국식 한자로 바꾸었다.
5. 일본어 책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어 번역본의 서지사항은 모두 삭제했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허용합니다.

메시아의 구원 : 발터 벤야민의 메시아주의에 관한 연구

1판 1쇄, 2021년 11월 1일

지은이, 시라이 아키코 /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옮긴이, 김상운

비매품

논문 요지

서장. 메시아주의로의 도움달기

과제와 방법

젊은 시절의 ‘낭만주의적 메시아주의’

제1장. 매질로서의 세계에서의 ‘신적 폭력’의 현현

: 「**폭력비판을 위하여**」를 둘러싸고

텍스트와 관심의 소개

1. ‘신적 폭력’ 개념의 규정
 - (1) 자연법과 실정법
 - (2)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
 - (3)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
2. ‘신적 폭력’ 개념의 발전적 이해
 - (1) ‘신적 폭력’ 개념에 대한 의문
 - (2) ‘매질’ 개념의 도입
 - (3) 매개항으로서의 만물에서의 ‘신적 폭력’의 현현
3. ‘신적 폭력’ 개념의 귀축
 - (1) ‘낭만주의적 메시아주의’와 거리두기
 - (2) 논리적 공백

제2장. 행복의 율동

: 「**신학적-정치적 단편**」을 둘러싸고

텍스트와 관심의 소재

1. 「신학적-정치적 단편」의 개요와 특징
 - (1) ‘신정정치’의 허망
 - (2) 신의 왕국과 세속적 질서 사이의 관계
 - (3) 무상함·덧없음의 추구
2. 메시아의 도래
 - (1) 「신학적-정치적 단편」에서의 시간론적 구조의 분석
 - (2) 초월인가 내재인가
 - ① 타우베스 『바울의 정치신학』에서의 해석
 - ② 야감벤 『남은 시간』에서의 해석
 - (3) 열린 문, 그리고 문지방

제3장. 희망의 내실

: 「**괴테의 『친화력』**」을 둘러싸고

텍스트와 관심의 소재

- ① 「괴테의 『친화력』」에 관해
 - ② 소설 『친화력』에 관해
1. 신화적인 것
 - (1) 사상내실과 진리내실
 - (2) 사상내실로서의 ‘신화적인 것’
 - (3) 죄의 연관
2. 결단에 의한 구원
 - (1) 괴테와 자연의 관계를 둘러싼 분석
 - (2) 기존의 괴테 해석에 대한 비판
 - (3) 노벨레 〈놀라운 이웃 아이들〉

3. 극한의 희망

- (1) 가상적 존재로서의 오티리에
- (2) 상징으로서의 별이 나타내는 것
- (3) 『친화력』론에 의해 개척된 신국면

제4장. 왜곡된 것들의 원상

: 꿈추 난쟁이 혹은 난쟁이(1)

텍스트와 관심의 소재

1. Zwerg와 Kobold

- (1) 야콥 그림에 의한 Zwerg 분석
- (2) 그림형제에 의한 Kobold의 소개

2. 카프카론에서의 «꿈추 난쟁이»

- (1) 글로 쓰이지 않은 법
- (2) 어리석은 자들의 승리
- (3) 유배 혹은 일그러진 삶

제5장. 메시아의 구출

: 꿈추 난쟁이 혹은 난쟁이 (2)

텍스트와 관심의 소재

1. 『199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에서의 ‘꿈추 난쟁이’

- (1) 망각된 것: ‘그저 언제나 나를 봤다’
- (2) 기억의 화신: ‘꿈추 난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2.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에서의 ‘난쟁이’

- (1) 신학으로서의 ‘난쟁이’
- (2) 역사주의 비판

3. 총괄: 기도의 작법

〈보론 1〉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폭력비판시론 : R. 록셈부르크와 W.
벤야민」

〈보론 2〉 이치노카와 야스타카, 「법/권리의 구출 : 벤야민 재독해」

논문 요지

문제 관심의 소재

이 논문의 주요 과제는 독일의 비평가 발터 벤야민(1892~1940)의 역사철학적 사색을 특징짓고 있는 메시아주의에 조명을 맞추고, 그 특질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벤야민의 메시아주의가 어떤 특질을 가진 것이었는가>라는 물음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종종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요소를 지적함으로써 답변을 대신하려고 시도되었다. 그러나 벤야민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 사상 조류나 인물이나 책을 아무리 열거해도, 벤야민이 다름 아닌 그것들에 끌린 내재적 이유를 짐작할 수는 없으며, 그가 그것들로부터 퍼 올린 요소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행로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바구니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일 뿐이다. 또 벤야민의 서술이 다른 아무개라는 논자의 기술과 유사하다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것은 벤야민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해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벤야민의 메시아주의적 발상이 어떻게 싹트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의 흔적을 찾는 작업에 있어서 진정한 발판은 그 자신이 남긴 텍스트 이외의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없다.

그렇지만 원래 메시아주의라는 테마에 초점을 맞춰 복수의 텍스트가 횡단적으로 검토된 선행연구는 많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그것들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벤야민의 서술의 의미를 발명하려고 할 때, 무

엇인가 말하면 <전통적인 유대교적 메시아주의의 교의에서는 이러저러하다>고 주해를 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약간 안이한 경향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수법에 의해서는 벤야민의 메시아주의가 지닌 사정거리의 넓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벤야민의 복수의 텍스트를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그의 메시아주의의 해명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표로는, 대별하면 세 가지 논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 해석을 얻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점은 벤야민이 생각하는 구제란 무엇(어떤 상태)에서 무엇(누구)을 구제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구제는 우리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확신하고 있는가이다. 또 둘째로, 그 구제는 언제 어떻게 찾아온다고 생각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야민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또 희망이란 어떤 것인가가, 세 번째의 논점이 된다. 단, 이 세 가지 논점은 그 본성상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이 논문 속에서도 그것들을 분리하여 차례대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서 각 장에서 반복해서 논의의 도마에 올리고 마지막 장에서 개괄하는 방법이 채택된다.

서장

서장에서는 전반부에서 이 논문의 과제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후반부에서 이 논문의 논의 전체의 출발점으로서 벤야민의 박사논문『독일 낭만주의의 예술비평 개념』(1919년 통과, 1920년 발행)을 다룬다.

벤야민은 이 논문에서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자들(주로 프리드리히 쉴레겔과 노발리스)의 예술비평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은 그들의 반

성이론에 의거하여 구축되어 있다고 논하였다. 벤야민에 따르면 초기 낭만주의적 반성이론의 획기적 특징은 유한적 자아가 자신의 한계를 차례차례 뛰어넘어 반성의 그릇이라고도 해야 할 반성 매질인 절대적인 것으로 자기를 해방시켜가는 과정으로서 반성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인식론적 도식을 예술 이해에 도입할 경우, 개개의 예술작품이 유한적 자아(개물)에 상당하고, 예술이라는 이념이 절대적인 것에 상당한다. 벤야민은 이러한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초기 낭만주의적 예술비평 개념의 의미를 예술작품을 통한 반성적 자기인식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벤야민은 초기 낭만주의자들의 역사철학도 같은 인식론적 도식에 의거했다고 보고, 그 본질을 ‘낭만주의적 메시아주의’라고 명명한 것이다. 벤야민은 이 박사논문에서 ‘낭만주의적 메시아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사항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역사에서 개개의 사건이나 개개의 집단이나 개인의 행동은 반성에 있어서의 개개의 유한적 자아, 비평에 있어서의 개개의 작품에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 과정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세계 내의 만물과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일체의 것이라는 인식의 명징함이 높아져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이러한 역사이해에 역사를 점에서 점으로의 단선적 진행으로 간주하는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입장을 ‘메시아주의’라고 부르는 벤야민의 어법이 통상적인 어법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장

1장에서는 서장에서 다룬 낭만파론과 동떨어진 지점에서가 아니라, 낭만파론의 발상을 진화시킨 지점에 「폭력비판론」을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신적 폭력’ 개념을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벤야민은 「폭력비판론」에서 법질서가 지닌 폭력적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신화적 폭력’을 시조(祖形)로 하는 법은 생사를 지배하는 운명적 폭력으로서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스스로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즉 법은 인간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목적적이며, 인간의 삶을 자기현시의 도구적 수단으로 깎아 내리는 폭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벤야민은 그러한 법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구해낼 수 있는 ‘신적 폭력’의 개념을 제시하고 법질서를 타도하는 — 결국 국가권력을 타도하는 혁명의 필연성을 설파한다.

벤야민의 ‘신적 폭력’ 개념은 테러를 용인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이 점이 기존 연구가 ‘신적 폭력’ 개념을 주체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낭만파론에서 제시되었던 매질이라는 개념을 빌려 다시 해석한다면, 세계는 ‘신적 폭력’이 거기에서 현현하는 **매질**이며, 역사상의 개인이나 개개의 집단, 개개의 사건 모두에 매개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매개항들이 법의 폭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신적 폭력’은 현세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현현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

리에게 잠재적으로 갖춰져 있을 가능성의 개화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면, ‘신적 폭력’ 개념을 기존의 법질서를 배격하라는 의도에서 나온 과격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단략^{短絡}적 해석을 배척할 수 있다.

2장

2장에서는 벤야민의 1920년 전후 메시아주의적 사고의 기본 구도가 응축된 형태로 제시된 「신학적-정치적 단편」을 다룬다. 그 기본구도가 지닌 시간론적 구조는, 한편으로는 이미 낭만파론에서 거론되었던 반성이론의 그것과 상통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훗날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전개되는 역사주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 시간론적 구조의 특이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에른스트 블로흐의 『유토피아의 정신』, 야콥 타우베스의 『바울의 정치신학』, 조르조 아감벤의 『남은 시간』이 일부 참조된다.

「신학적-정치적 단편」의 요점은, 이하와 같다. 첫째, 벤야민이 생각하는 신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먼 미래에 개량되어 끝나고 변화한 곳의 상태, 즉 역사의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지상적인 것 일체에 의한 더욱 더 행복 추구라는 영위^{營爲}는, 그 자체로서는 몰락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적인 힘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이 행복이란 사실 너무 무상한^{덧없는} 자연의 리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담한 명제이다. 셋째,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우리 몸에 떠맡는 허무주의에 의해 무상함^{덧없음}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정치의 사명이라고 벤야민은 주장한다.

이 장에서 필자는 상세한 독해를 통해 이 단편에서의 신정정치 비판의 본뜻이 진보주의적 세계관(근대과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객관적 필연성이 자동적으로 역사를 최종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준다고 퍼뜨리는 세계관)에 대한 거부임을 보여준다. 또 필자는, 벤야민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하와 같이 분명히 한다. 그 경우의 행복이란 자연 만물의 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율동을 뜻하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상한(덧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율동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멸망의 운명이 갖는 진의를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메시아적인 힘의 징조를 발견하려는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에 다름 아니다. 메시아는 적어도 세속적 질서와의 관계에서 보는 한, 메시아적 힘과 동의어이며, 그것은 한편으로 역사를 끝내는 일회적이고 초월적인 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멸망이라는 운명의 형태로 역사의 구석구석에까지 침투해 있는 내재적인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율동으로서의 행복을 청취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가, 이 단편에서는 명확하게 논해지고 있지 않은 것도, 필자는 지적한다.

3장

3장에서는 「괴테의 『친화력』」을 다루고 벤야민의 ‘신화적 자연’관과 구제나 희망 같은 테마에 대한 그의 서술을 검토한다.

벤야민은 괴테의 장편소설 『친화력』을 음미하며, 우선은 그 사상 내실(事象內實)인 ‘신화적인 것’을 분석한다. ‘신화적인 것’은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농락하는 인간 지식을 초월한 힘을 가리키며, 그 현상

은 한편으로는 법적 관계로서 그들을 구속하는 혼인 속에서 발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속에서 발견된다. 벤야민의 정의에서는 이런 ‘신화적인 것’의 굴레 안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내건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벤야민의 논의는 과거 「폭력비판론」에서 제시되었던 구체의 프로그램, 즉 인간의 삶이 그것을 둘러싸는 운명적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과 정면에서 대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항대립 도식과 매우 가깝다.

그러나 필자는 이 비평이 그 후 벤야민의 메시아주의적 역사철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임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비평의 최종 단락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이항대립 도식으로 수렴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주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단하지 못하고 ‘신화적인 것’의 폭위(暴威)에 의해 파멸로 몰리는 『친화력』의 주인공들에게도 또한 궁극적 희망이 남아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3의 길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신학적-정치적 단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행복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세속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방법이 적어도 한 가지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즉, 결단에 의해 운명적 폭력과의 대결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명적 폭력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무엇이 상실되고 말 것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금은 죽은 자들을 마음속에서 구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뤄진 것이다.

4장

4장에서는 다시금 법이나 폭력이라는 테마가 발견되는 비평 「프란츠 카프카: 사후 10년을 맞이하여」를 분석하고, 특히 그 속에 등장하는 〈뿔추 난쟁이〉라는 모티프에 주목한다. 또한 이번 장에서는 지금 말한 카프카론의 분석에 앞선 예비 작업으로서 야콥 그림의 『독일 신화학』과 야콥이 동생 빌헬름과 함께 엮은 『독일 전설집』을 참조하여, 이것들에 있어서의 난쟁이와 코볼트(인가人家에 사는 난쟁이)의 존재규정을 정리한다.

야콥 그림에 따르면 북유럽 신화의 하얀 정령과 검은 정령이 기독교의 천사와 악마를 닮은 데 비해, 난쟁이(Zwerg)는 마찬가지로 북유럽 신화에서 출신을 가지면서도, 백이라고도 흑이라고도,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존재이며, 기독교의 전파에 의해 설 자리를 잃은 존재다. 또 그림 형제에 따르면 코볼트는 유령이라고 하기도 하며, 강자에 의해 통상적인 생활권 밖으로 내몰린 인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기묘한 존재이다.

그런데 벤야민의 카프카론에서는, 〈뿔추 난쟁이〉가, 망각에 의해서 모습이 불품없이 일그러져 버린 자들의 원상原像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잊히고 있다는 말인가? 벤야민의 해석에 따르면, 카프카의 소설의 불쌍한 등장인물들이 종종 그렇듯이, 부지불식간에 불문법을 깨뜨려서 죄를 선고받는 것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태고의 법률이 지니고 있던 본질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필연적인 운명인 것이다. 글로 쓰이지 않은 법(불문법)은 항상 자신을 배반하는 자를 산출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자를 스스로의 지배 아래 묶어 둠

으로써 힘을 과시한다. 그러나 이런 법률 앞에 피고인으로서 서게 되는 인간은 자신이 그러한 폭력적 운명에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상태를 감수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가능성을 잃고 있는지도 잊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망각을 둘러싸고 벤야민이 전개하는 논의를 세심하게 추적하고, 또한 난쟁이나 코볼트가 담당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파멸해 가는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한 구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의 해결의 힌트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서는 4장의 논의에 따라,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속에서 〈뿔추 난쟁이〉가 재등장하는 부분을 꺼내 검토하고, 나아가 1번 테제에서 〈난쟁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를 논급한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 희망 없는 이들을 위한 구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벤야민의 고구^{考究}가 그의 말년에 어떤 지점에 도달했는가가 드러난다.

『유년시절』의 말미에 놓인 수필 「뿔추 난쟁이」 역시 난쟁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히고 모습이 일그러져 가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런 한에서 난쟁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대표이다. 난쟁이들이 너무 깊이 망각 속에 갇힌 존재들이라서 우리는 [그들을] 쉽게 볼 수 없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난쟁이이란 완전한 기억의 화신^{化身}이기도 하다. 벤야민은 죽음에 임하는 자에게는 난쟁이가 가진 우리 일생 동안의 기

역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에 즈음해 온갖 기억이 되살아난다 해도,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시시각각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도래하는 걸까? 2장에서 논한 것처럼, 메시아가 역사를 절단하는 초월적 힘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 그것을 끝으로 이끌며 — 내재하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면, 이 맥락에서 그 메시아적 힘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로서 필자는, <꿈추 난쟁이>이야말로, 망각 속에서 왜소화 되어 참 모습을 잃어버린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가설을 제출한다. 우리의 망각에 의해 일그러진 모습이 되어버린 난쟁이=메시아는, 망각이라는 과오가 바로잡힐 때 비로소,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즉, 아감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메시아의 도래가 완료하는 것이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첫 번째 테제에는 인형(=사적 유물론)을 몰래 조종해 승리로 이끄는 난쟁이(=신학)라는 비유가 제시돼 있다. <난쟁이>라는 비유가 <꿈추 난쟁이>이라는 모티프의 그것과 겹치는 의미를 담아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수상한 이데올로기나 내용이 공허한 형이상학 같은, 우리가 버려야 할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난쟁이>란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림으로써 일그러진 것, 그리고 우리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운명적 폭력을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난쟁이>=신학이 의미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동정(同定)한다면, 그것은 무상한(덧없는) 모든 것들이며 그들에게 남겨진 궁극적인 희망이다. 그리고 그 희망이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품게 되는 강한 생각 속에서 — 즉, “그 사람들

에게도,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구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유물론이 자신 안에서 신학을 작동시킨다는 것은 우선은 망각에 의해 멸시되고 왜곡되어온(일그러져온) 과거에 상념 속에서 본래의 가능성을 되찾게 하고 자신의 구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아마도 벤야민에게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언젠가 어디선가 메시아에 의해 구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뾰추 난쟁이>를, 난쟁이를 지금 여기서 구제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가 구제해야 할 것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힘이 봉쇄되어 있다면,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 그렇기는커녕 사태는 악화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을 자신의 가슴에 되찾아주어야 한다.